

독일, SEDA社 3.5 x 20미터 점보 글라스 생산



Bernhard Veh, CEO of sedak

독일에 위치한 세계적 점보유리 생산업체인 SADAK은 올해 중반부터 가로 3.5미터 세로 20미터의 초대형 점보 글라스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회사 Bernhard Veh는 “가로 3.5미터와 세로 20미터의 점보글라스의 생산은 그동안 이 분야 선두업체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최근 10년동안 고객들로부터 더 큰 사이즈 유리의 생산에 대한 많은 요구가 있었고 이에 대한 보답”이라고 밝혔다.

생산 능력을 확장함으로써 Sedak社는 가로 3.5미터에 세로 20미터 크기의 유리를 생산하는 세계 유일의 업체가 되었다. 2007년 이래 이 회사는 자체 연구 및 개발에 있어서 꾸준한 투자로 현재 이 분야에서 전문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이 회사 Bernhard Veh는 “그동안의 점보 글라스 생산에 대한 꾸준한 연구로 많은 전문가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들 전문가들이 우리 회사의 가장 큰 재산”이라고 밝혔다.

올해 중반부터 생산에 들어가는 대형 유리를 위해 이 회사는 특수 기계를 주문했다. 이 기계의 제작을 위해 기계 제조사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했으며, 이 회사의 오랜 대형유리 생산 기술이 기계 제작에 접목되었다.

최근 세계적으로 점보 글라스의 사용은 늘고 있는 추세다. 많은 건축가들이 보다 독특한 디자인을 위하여 점보 글라스를 선택하고 있다. 독일의 Sedak社는 현재 가로 16.5미터의 유리를 생산하고 있다.

모든 생산 과정은 자동화가 되어 있으며, UNO건물 전면 13m높이 유리, 애플 본사의 15미터 유리 등 세계시장에서 대형 유리의 적용에 두각을 나타내 왔다.

Sedak은 독일 게어스트호펜에 위치한 Sedak은 2007년에 설립되었다. 회사와 150명의 직원은 대형 유리 생산에 있어서 혁신적인 리더로 발전해 왔다. 대형 유리 제조에 있어서 10년의 경험은 이 분야에서 전문가로 평가 받고 있다. 현재는 최대 3.2m x 16.5m 크기의 대형 유리를 생산하고 있는데, 가공, 강화, 접합, 인쇄, 코팅 및 콜드 벤딩이 가능하다.



SEDAK社 공장 전경



©sedak GmbH & Co.de | René Müller

